

# '위험천만' 어린이집 통학차량

## 광주경찰, 만취상태 운전 40대 입건

## 규정 안 지키기 일쑤 '대형참사' 예고

어린이집 통학을 담당하는 버스 운전사 일부의 '안전 불감증'과 경찰 등의 부실 관리로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같은 실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만취 통학차 운전=광주북부경찰은 지난 3일 만취상태에서 어린이집 원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광주 H어린이집 운전기사 김모(4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3

시40분께 술에 만취한 채 광주시 북구 양산동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25인승 버스에 원생 7~8명을 태우고 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점심을 먹으면서 동료와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통학차엔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S관공 회사 소속으로 어린이집과 임대계약을 맺은 뒤 통학차를 운행해왔다. 또 야간엔 같은 통학차

를 이용해 고교생을 하고 시키는 일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0~올해 3월 31일)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1800건이다. 사망자는 9명·부상자는 2300명이다.

◇관리·감독은 '허술'='도로교통법'상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뒤 ▲보육교사가 동승하고 ▲운전자나 동승교사가 직접 승하차문을 열고 닫아주며 승하차를 도와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규정도 잘 지키지 않다 보니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현황과 안전성 개선 과제'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15만여대중 신고된 통학버스는 고작 4만600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보육시설의 35.3%, 학원의 54.0%가 불법적 형태인 지립제로 통학버스를 운행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경찰과 자치단체의 단속은 미흡한 수준이고 그나마 현재로는 통학버스로 신고하더라도 운전자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를 보호하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다.

처벌 규정 또한 어린이를 태우는 대형 버스와 일반 승용차가 같은 음주 단속 시 대부분의 통학차는 제외해 위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어린이 통학차량

### 3회 이상 안전위반면

### 시설 인가·등록 취소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이 세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무제'가 도입된다.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차량을 운행하면 시설 운영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정부가 지난해 조사한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을 보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 6만5000여대 중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은 3만4000대(52.6%)에 그쳤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법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보호자 동승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

미신고 통학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관리, 안전 의무를 위반하면 시설 운영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시설의 인가·등록이 취소되는 '삼진아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목적의 유상운송의 허가조건을 현행 2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으로 현실화했다. 대상 시설은 현재 학교·유치원에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또 좌우 광각 실외후사경, 후진 경보음, 후방 카메라 등 후방감지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3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7분    해질 19시 22분

달돋이 03시 11분    달질 15시 53분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9/25°C
목포	맑음	9/21°C
여수	맑음	14/23°C
나주	맑음	5/26°C
완도	맑음	9/25°C
구례	맑음	7/26°C
강진	맑음	6/24°C
해남	맑음	6/25°C
장흥	맑음	5/25°C
순천	맑음	6/25°C
영광	맑음	7/22°C
진도	맑음	7/23°C
전주	맑음	8/23°C
군산	맑음	7/20°C
남원	맑음	5/24°C
옥산도	맑음	9/17°C

바다	방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노출증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m	주의	높음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m	주의	높음	보통

바다	방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m	목포 11:37	04:34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m	여수 06:44	00:1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1/26	13/25	14/22	16/20	12/23	14/24



과학동아리 복지시설 로켓봉사

광주 송의중학교(교장 김해숙) 과학동아리 '빅뱅' 회원들이 지난 4일 광주시 동구 행복재활원에서 과학체험교실을 열어 원생들에게 로켓이 발사되는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과학동아리 '빅뱅'은 올해로 18회째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재미있는 과학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경찰 '성적대' 원본 동영상 확보... 수사 활기찾나

### 김학의 前차관 목소리 분석 95% 일치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 인사 성적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적대 장면을 찍은 동영상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씨의 불법행위 규명 수사에 탄력이 불을지어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성적대 동영상 원본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박모씨와 그의 운전사 또 다른 박모씨를 체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월부터 동영상 원본이 저장된 컴퓨터를 제출받은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윤씨의 성적대 여부를 밝히는 건 수사의 일부라고 윤씨가 유력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이익을 취했는지를 전반적으로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자 가운데 일부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前) 법무 차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문제의 인물이 누구냐에 집중됐다.

원본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와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동일인물인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윤씨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할 진술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한 경찰이 원본 동영상 입수했다면 수사가 활력을 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합뉴스

## 음주운전 교육공무원 다시 증가

### 작년 광주·전남 34명 적발...3년새 교원이 75% 차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광주·전남 교육공무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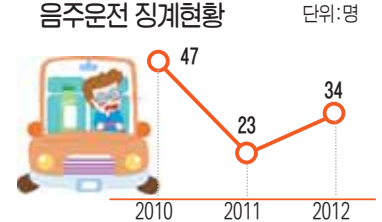
5일 광주·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광주 16명, 전남 18명 등 모두 34명에 달했다. 이는 2010년 47명에서 2011년 29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10년 11명에서 2011년 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6명으로 무려 4배가 늘었다. 전남은 2010년 36명, 2011년 19명, 2012년 18명으로 다소 줄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광주·전남지역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수는 총 104명에 달한다.

이 중 교원이 78명(광주 25명, 전남 53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 것

■ 광주·전남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현황



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리며 처벌기준을 높이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불분명하고 견책에 그친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상무지구 임대아파트 안짓는다

### 주민 반대로 백지화...남구·서구에 대체부지 선정

광주시가 서구 상무지구 소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던 계획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상무소각장 인근 1만5495㎡의 부지에 29㎡(8.7평)와 39㎡(11.7평) 규모 임대아파트 786가구를 짓기로 하고 오는 6월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실시설계를 중지했다. 상무지구 아파트 입주자들이 해당 부지에 공공기관을 건립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형 임대아

파트 건립을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남구청과 서구청으로부터 부지 각 1곳씩을 추천받아 소형 임대아파트 대체부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에 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고 재래시장이 없어 서민 거주지로는 최적지가 아니다"며 "남구청과 서구청에서 부지를 추천하면 적절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체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 제8회 광주전기인 체육대회

범 전기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제8회 광주 전기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오니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3. 5. 11(토) 오전10시

장소 | OB맥주 광주공장 운동장(북구 일곡동)

주 관 |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주 최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기술협회 광주광역시 전남도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51 ☎ 062-352-1044 Fax. 062-352-1042

회 장 문 유 근    중 앙 회 이 사 윤 보 선

부 회 장 이 기 업    전기신문 이 사 김 종 철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 사 백 남 길